

반도체·전장 등 대규모 M&A 전망… ‘뉴삼성’ 기대감 고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일선 복귀
그룹 내 의사결정 등 변화 예상
위기 극복·미래비전 확보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삼성그룹의 위기 타개와 미래 비전 확보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그룹의 위기와 함께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 그룹의 혁신을 추진하며 ‘뉴삼성’을 향한 체제 마련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삼성 돌파구 모색 매진

삼성전자는 총수인 이 회장이 그동안 사법리스크에 매여 있음에 따라 대규모 투자 결정 등에 차질을 빚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사업에서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부문의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초격차를 자부해온 메모리 부문은 인공지능(AI) 핵심 밸류체인이 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에 실패한 채 글로벌 점유율 1위도 위태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운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발표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 약화와 회사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4조 6000억원에 그쳤다.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마저 SK하이닉스에 내어줄 위기 상황을 맞았다.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애플에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내어줬으며 중국 업체는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30년 가

까이 그룹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모바일이 힘을내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현대차와 SK하이닉스에 밀려 2년 연속 국내 2위에 그쳤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졌다. 국내에서도 상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부작용으로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 투자와 빅딜 집중

이 회장이 경영 현장으로 완전히 복귀하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공격적인

M&A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M&A 의사결정이 한결 과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삼성은 ▲소니오(의료기술) ▲옥스포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AI)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 ▲플렉트(공조) ▲마시모(오디오) ▲젤스(헬스케어) 등 6개사를 차례로 인수했다.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오랜만에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모바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M&A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M&A를 통한 초격차형 미래기술을 확보할 경우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초대형 빅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반도체와 모바일, 전장 등은 수익성과 직결되고 대규모 투자와 M&A 전략이 필요한 만큼 이 회장의 경영 복귀로 삼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와 함께 그룹의 빅

딜도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를 인수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또 최근 이 회장이 미국에서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AI 분야 협력 강화와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달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CEO 모임인 ‘구글 캠프’에도 참석해 신기술협력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을 신속하게 이어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로봇, 의료 분야 등에서 인수합병이 집중력 있게 이뤄진 만큼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며 “M&A에 집중하는 것은 그간 뒤쳐진 부분을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경제계, 무죄 안도… “韓 경제, 긍정적 효과 가져올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불법승계’ 의혹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계는 이 회장의 무죄에 안도하며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

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

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장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 회장은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 등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일자리 줄고 물가·집값 치솟고… 독립·결혼 대신 생존 택해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② 우울한 청년세대

독립·결혼·양육, 능력의 영역으로

자녀 세대가 빠르게 가난해지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도 빠르게 올랐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자산형성도 어려워지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과 양육도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19~34세 청년의 평균 소득은 연 2625만원(월 219만원)이다. 40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 연 5027만원(월 41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 유연화로 인한 고용 품질의 양극화, 실업 청년 증가,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기성세대와의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지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 청년 1인 가구는 원룸 거주비율이 높다. /뉴시스

196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7.4%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 인구구조 변화,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2.3%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인 연 3.1%를 밑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도 임금상승률을 앞질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95%다. 같

은 기간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인 3.7%보다 높다. 매년 월급이 오르는데도 구매력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자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위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와 부모와 계속해서 생활하는 ‘갬거루족’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결혼과 독립도 의무가 아닌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청년 1인 가구 급증… 혼자 벌여 혼자 산다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2.6%에서 2024년 23.8%로 1.2%포인트(p) 늘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57.9%(보증부월세 및 사글세)다. 27%는 전세 형태로 거주 중이고, 자가 거주는 5.9%에 불과했다. 소득 대비 평균 주거비 지출은 17.5%였으며, 3명 중 1명은 주거비 부담액이 전체 소득의 20%를 넘겼다.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1만명이다. 이중 150만명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발생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1만개)는 인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4만800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17년 하반기 8.7%포인트(p) 수준이었던 수도권-비수도권 간 청년 임금 격차는 2022년 하반기 14.1%p까지 상승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위해 상경을 택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독립도 결혼도 ‘돈 문제’… ‘갬거루족’ 급증

경제적 이유로 독립과 결혼을 포기하는 ‘갬거루족’(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비중은 54%(자녀 가구주·부모 가구주 합산)다. 재산 축적이 어려운 자

녀 세대가 빚을 내서 독립하기보다는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 공동체로 남는 경우가 과반이다.

청년의 독립과 결혼을 늦추는 것은 고용구조의 변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지난 2022년 24.8%에서 2024년 21%로 2년 만에 3.8%p 하락했다. 공채를 줄이고 경력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이다. 청년 대다수가 독립과 결혼, 육아를 꺼리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꼽는 만큼 좋은 일자리 감소는 독립을 포기하는 청년을 늘리고 출생률도 낮춘다.

갬거루족의 증가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대신 결혼과 양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한 청년은 “부모찬스 없이는 처음부터 자거나 전세를 마련하는 건 어렵고, 월 50만~6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면 저축도 빠듯해진다”라면서 “내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